

1만1천t 세월호 육상 부두 거치 성공 관건

세월호 인양 남은 과정은

세월호 인양 남은 일정

※ 날짜는 해수부 발표에 따른 추정

1 세월호 선내 배수와 잔존유 처리

(반잠수선 양쪽에 유류흡 유실 방지망 설치)

방제작업

25~28일

2 세월호 고박 후 목포 신항으로

약 87km 이동 (10~12시간 소요)

28일

3 도착 후 부두 거치 (3일 소요 예상)

목포 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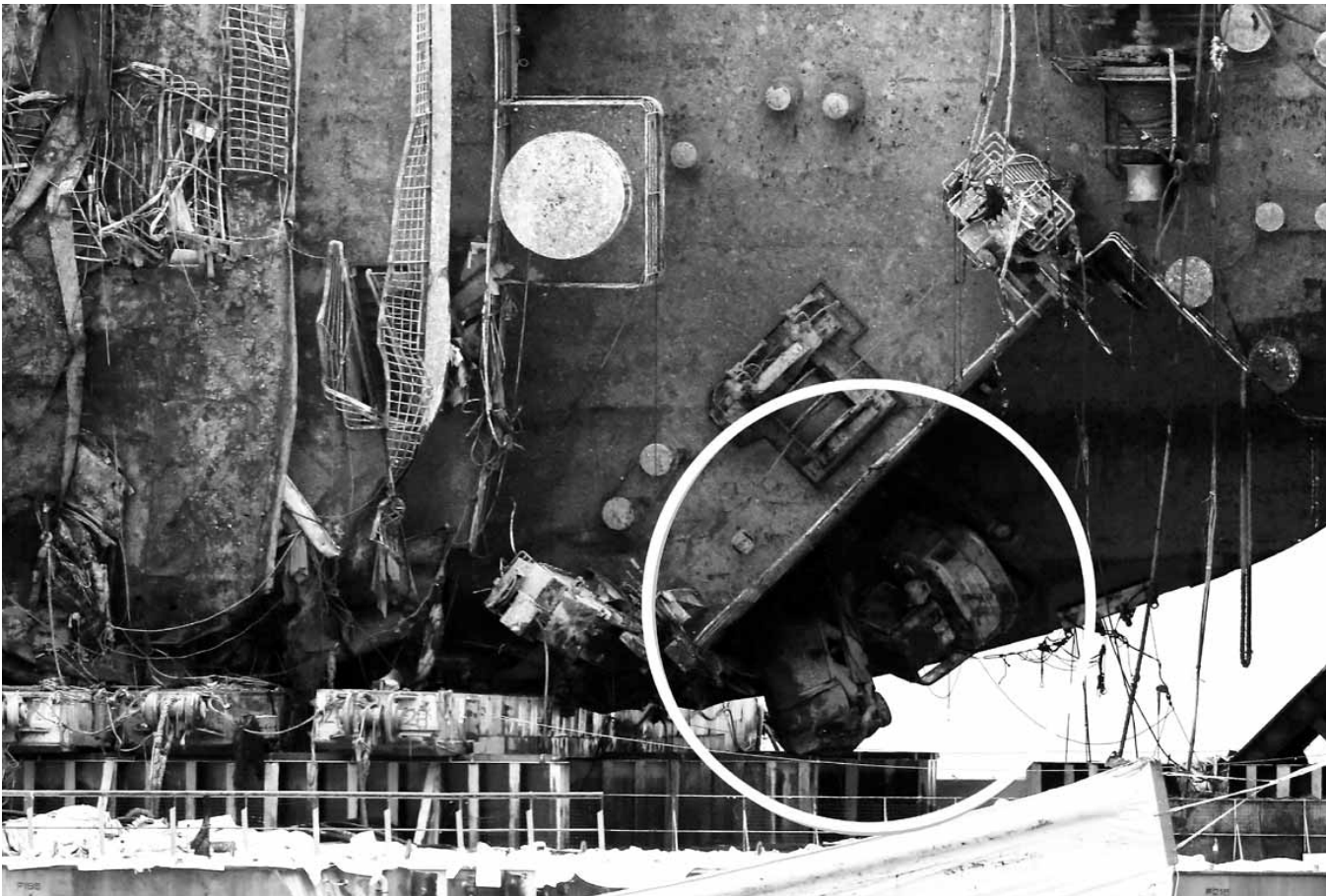
29~31일

연합뉴스

‘9부 능선’에 오른 세월호 인양의 남은 난제는 목포 신항 접안 후 육상 부두에 올리는 작업이다. 초대형 구조물의 육상거치만으로도 고난도 작업인 데다가 선체 훼손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부력이 작용하는 수중에서는 8000t가량이 었다가 수상에서는 자체중량이 1만1000t으로 증가했다.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기 전 선내 해수를 배출하면서 무게가 다소 줄어든다 해도 1만t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부두 운송은 ‘특수 작전’에 비유가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인 ALE사가 설계·시행하는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



26일 진도군 조도면 맹골수도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반잠수선으로 옮겨진 세월호의 선미에 승용차와 굴삭기(하얀 원네)가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트랜스포터’ 456대 이용 부두로 이동 균형 유지 등 작업 까다로워…3일 소요

porter)가 동원된다. 반잠수선으로 운반한 세월호를 목포 신항 철재 부두에 거치하는 특수 운송장비로, 주로 조선소에서 대형블록 등 운반에 사용된다.

76대씩 6줄로 도열한 456대 트랜스 포터가 세월호 무게를 나눠 받치고 운송하게 된다. 456대 전체 길이는 114.8m, 폭은 19.6m다.

트랜스 포터는 항구에 접안한 반잠수선 갑판에 올려진 세월호 하부로 진입해 선체를 올린 뒤 부두로 이동하게 된다. 운전원 없이 무선 원격조정으로 가동되며 트랜스

포터의 유압장치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1만t급 구조물을 옮기는 동안 무게중심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해수부는 해상과 육상 경계에서 세월호를 부도로 이동시키는 데만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잠수선의 균형을 고르게 유지해야 하고 선체 파손도 발생해서는 안 되기때문에 작업은 더 까다롭다.

이철주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세월호를 육상으로 거치하기까지 중요한 공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목포 신항 철재부두 접안 후 육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세월호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 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8명 확정

세월호 완전한 인양이 ‘조임기’에 들어간 24일 진상조사에 나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8명이 확정됐다.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 조사 위에는 김창준 변호사 등 법조인과 장범선 서울대 교수 등 선박·해양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 학부 교수를 각 1명씩 추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해양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선박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근 씨를 추천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8명을 최종 선출하면,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최장 10개월을 활동할 수 있다. 조사위는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해 조사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선에 현재재판관 내일 취임…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헌법재판소가 보름 만에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정미 전 현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에(50·사법연수원 21기·사진)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달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



후 18일 만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에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연합뉴스

휘어진 세월호 ‘방향타’ 침몰 원인 ‘방향타’ 안될 듯

전문가 “조타 문제만으로 원인 못밝혀”

3년 만에 바닷물 속에서 올라온 세월호의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꺾인 모습으로 발견됐다. 그러나 이 모습만으로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반잠수선에 실려 좌측으로 몸을 누인 채 밑바닥을 드러낸 세월호에서 목격된 방향타는 위쪽으로 살짝 들어 올려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선박 전문가는 “직접 보지 않고 사진 등을 통해서 보는 것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향타가 우현으로 5~10도 정도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의 방향타가 이런 상태가 되면 배는 5~10도 우회전한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검찰은 사고 당시 조타수가 조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세월호가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복원성이 좋지 않았던 배가 원심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준석 선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가 기운 직후 조타실로 가 보니 타각 지시가 우현 쪽 15도 정도를 가리켰고, 배가 급격히 기운 것으로 봤을 때 조타수가 타를 돌릴 때 우현 쪽으로 15도 이상 돌린 것 같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모습대로 방향타가 꺾인 상태에서는 배가 급격히 회전하지는 않는다. 선박 전문가는 “이 정도로는 심한 각이 아니다”라며 “배가 침몰 전 한 바퀴 돈 것으로 나오는데, 배가 그렇게 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방향타 모습이 침몰 당시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타를 현재 방향타 모습보다 더 세게 했다가 반대로 돌리고 나서 선체가 침몰했을 수도 있다. 선박 엔진이 멈추면 방향타가 풀려버릴 수 있고, 원 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다. 침몰 후 조류 등의 영향으로 방향타 방향이 다소 바뀌었다가 해조류가 끼이면서 고정됐을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선박의 정비 상태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다. 결국은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거처지고 나서 선체 조타기기 전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야 사고원인이 규명될 전망이다.

조타 문제만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선박사고 분석 전문가인 정대진 솔렌글로벌 컨설팅 대표는 “엔진 이상으로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거나 평형유지 기능이 고장 난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의자 박근혜’ 영장여부 이번주 결정

김수남 검찰총장 장고…‘우병우 조준’ 靑 압수수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안에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수사 기록과 법리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당장 주 초판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지난 24일 주말을 반납하고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검토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증거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범죄계에서는 수사팀이 주말과 휴일에 수사결과를 정리해 총장에게 보고하고 김 총장이 이를 토대로 금주 초판에 결단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논란’

을 최소화하려면 신병처리는 3월 중으로 끝내고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내달 초로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관련 부서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만 청와대 측이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은 이전과 같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대신 건네주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9시 50분까지 약 5시간 남짓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청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